

서평

격동기(1900~1950) 서양인들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추적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Norwalk, CT: EastBridge, 2003).

安鍾哲*

한국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20세기 전반기는 구한말 혼돈, 식민지화,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등의 사회적 격변을 목도한 시기이다. 혼란 속에서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기초적 사실 확보가 여전히 각 분야에서 요청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외접촉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는 서구인들의 한국사회와의 조우는 이 시기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에 대한 연구편중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사회와 외부와의 문화접촉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학계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소재인 한국거주 서구인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1. 저자의 가족 배경

저자의 개인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분야 관련 저술에서 그가 적격자라는

* 인하대 HK 연구교수, 한국 근·현대사.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인 도날드 클라크(Donald N. Clark)는 3대째 한국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의 조부 찰스 클라크(Charles Allen Clark, 郭安連; 1878~1961)와 조모 마벨 클라크(Mabel Craft Clark)는 1902년부터 1941년까지 근 40년 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미 북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그의 외조부와 조모도 30년 넘게 선천과 평양에서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부부(Stacy L. Roberts, Evelyn M. Roberts)이다. 그의 부모도 한국에서 활동한 장로교 선교사로 알렌 클라크(Allen D. Clark, 郭安全; 1908~1990)와 유지니아 클라크(Eugenia Roberts Clark; 1908~1996)가 그들이다. 이들도 각각 서울과 선천에서 태어난 인물들로 근 40년에 해당하는 1933~1973년 기간에 평양, 청주, 서울 등지에서 활동했다.¹⁾

조부와 부친은 학자형 선교사였다. 조부 클라크는 *Religions of Old Korea,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 등의 책을 썼고 평양신학교의 교장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神學指南』에 수많은 신학논문을 발표한 신학자였다(p. 120). 부친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했고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1971)을 썼는데 이 책은 당시에 매우 드문 한국교회사 관련 저서였다(가족들의 저작에 대해서는 p. 414). 그의 고모인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E. Clark)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했는데 강계에서 월남한 한국인 홍경선과 결혼했다(pp. 399~400).

저자인 도날드 클라크는 한국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녔고 대학졸업 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입국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조선전기의 대명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의 일부가 편집되어 *Cambridge History of China*에 실려 있다. 또 3·1운동, 윤치호, 한국개신교사,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논문과 편·저서 등이 있다.²⁾ 그는 미 텍사스(Texas) 주의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
- 1) 이들 선교사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김승태·박혜진 엮음,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를 참조.
 - 2) Donald N. Clark, "Yun Ch'i-ho(1864~1945): Portrait of a Korean Intellectual in an Era of Transition," *Occasional Papers on Korea* 4, 1975, pp. 36~76; "Surely God Will Work Out Their Salv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in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Studies*(University of Hawaii) XIII(1989), pp. 42~75; 이

의 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풀브라이트(Fulbright) 방문학자로, 연구자 등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학자이다. 그의 한국사의 전근대와 근·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매우 드문 학자이다. 저자의 한국 관련 개인적·학문적 배경은 한국거주 외국인들과 한국 근·현대의 관계를 깊게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2. 책의 주제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1900년 구한말부터 1950년 한국전쟁발발 시점까지 한국에 온 서구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종류의 성취를 이룩했는지, 또 한국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SVM, p. 6)을 통해 아시아, 특히 한국에 오게 된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한다.

책이 다루는 시기의 대부분은 근 40년에 가까운 일본의 한국지배와 중첩되는 시기이므로 내용의 절반 이상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당시 대부분의 서구인들이 가졌던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유일한 비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의 서구인들의 생활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이들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조선인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정부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했다. 그것은 식민당국과의 관계만이 아닌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긴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 피난 온 백계러시아인 등의 생활은 근대 한국의 교회, 학교, 병원, 사업체 등의 설립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성과 서구인들의 관련성을 이 책은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일본 제국 내에서 활동하는 구미인들, 특히 선교사들의 존재는 성가신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의 사업체 인수, 신사참배 문제를 기점으로 선교사의 집단적 철수 등이 이루어

진 1930년대 후반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시까지 서구인들의 ‘위험하게 살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전후 이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인들은 한국에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다시금 한국사회에 깊게 관계되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개신교에 대해 공격적이었던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반공에 앞장섰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에서 이들은 더 한층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저서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전후 한국에서 이들의 존재는 한미관계에서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저서는 서구인들, 특히 선교사들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 보여 준다.

3. 전체 구성

이 책은 목차에서 보듯이 3분의 2 가량이 구한말 저자의 조부모가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했을 때(1902)부터 1945년 해방까지를 다루고 있고 이는 1부에 해당한다. 나머지 3분의 1이 채 못 되는 부분이 1945~1950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시기를 다루는 2부이다. 제6장의 백계 러시아인들, 제8장의 서구 여성들, 제11장의 동양광업회사를 다루는 장들을 제외하고는 이 책은 대체로 연대기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 혹은 송환되는 태평양 전쟁 전후(1차 1940년 11월, 2차 1941년 가을, 3차 1942년 여름)시기를 다루는 13장 “조선에서 위험하게 살기(Living Dangerously in Chōsen)”에서 Chōsen을 Korea로 바꾸어서 책 전체의 제목으로 하고 있다. 서구인들이 한국을 애정 어린 고향으로 보면서도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이방 땅이라고 양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파탄 나는 전시체제기는 이들의 한국체류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저서의 제목은 매우 암시적이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매우 독특한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의 조부모의 이야기와 서구인들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구조이다. 조부모의 경험을 통해 어찌면 당시 서구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한국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잃고 그것이 부인에게 후일까지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점, 길에서 전도하는 ‘복음주의 선교사’인 클라크의 모습, 신사참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클라크의 입장,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을 미국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하며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오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한 모습 등이 이 책 곳곳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역사를 넘어서 당시 서구인들의 구한국 정부·식민당국와의 관계, 고등교육기관이라든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선교사들의 입장 차, 그리고 본국으로 귀국과 한반도로의 재입국, 한국전쟁 시 서구인들의 반응 등의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4. 자료 활용

이 책은 서구 측 자료와 개인 인터뷰 등을 활용해서 저술되었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자료 이용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개신교 각 교파들의 문서고(archiv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개신교사 연구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미 북장로교 선교 관련 문서들과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장로교 역사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남장로교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문서고(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Department of History, Montreat, North Carolina), 감리교 문서고(United Methodist Church Archives, Drew University), 캐나다 선교회 문서고(United Church of Canada Archives, Victoria Universit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³⁾ 또 일반적인 외교정책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서(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Washington, D.C., College Park, and Suitland, Maryland), 영국 문서보관서(United Kingdom, Public Office, Kew, Surrey) 등의 자료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자료 이용 처 중 하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미 8군 도서관(Eighth U.S. Army Command Reference Library)의 한국 관련 문고

3) 국내에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이들 각 교파들의 원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구입해서 제책형식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Koreana Collection)이다. 이는 해방 후 미군에 대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문서고이다.

이 책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데 공식기록만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주역들의 자녀들의 기록이나 면담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고모부 홍경선, 백낙준 박사 부부 등과의 면담은 있지만, 다른 한국 측 핵심인사들과의 면담이나 개인 기록 활용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의 선교사에 대한 인상이라든가(물론 pp. 95~99에서 조금 다루지만) 신사참배문제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입장을 설명해줄 사람들 혹은 그들의 자녀 세대와의 면담이 더 있었다면 한국인들과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저자의 시각에 대해서

저자는 역사학자답게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당대의 시대상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기독교 역사를 중심축에 두면서도 이 문제를 당시 일반 역사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점이다. 이는 한국기독교교사들과 일반사자들이 공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사자들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좀 더 주목해야 하고 일반사자들은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기독교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신교 엘리트들의 역할에 좀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예로, 선천 신성학교와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맥쿤(George S. McCune, 尹山濤; 1873~1941)의 조사(助事)로 일했던 백낙준(pp. 106~109), 선교사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졌던 윤치호(pp. 110~115), 찰스 클라크의 조사로 잠시 일했던 여운형, 함태영(p. 120)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비록 이 책에서 언급은 안 되었지만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아들뻘로 그의 조사가 되었던 김규식,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이승만 등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전적으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한국의 엘리트로 성장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성장기에

선교사들의 도움과 사상적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저자 클라크는 식민지시기 한반도의 남과 북의 지역의식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구획 설정이 이러한 지역의식과 맞물린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15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에 서의 종교 교육 금지와 각 교파 선교부들의 연합대학 설립의 장소를 두고 빚어진 평안도와 서울지역 선교사들 간의 ‘일반교육’ 문제에 대한 의견차(pp. 127~133)를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인 개신교 엘리트들만 아니라 선교사들 간에도 지역별·교파별로 의견 차이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점은 한국인 기독교 엘리트들 사이의 지역감정과도 맞물렸을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

저자인 도날드 클라크가 선교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남한에 왔었던 선교사들(아버지 알렌 클라크를 포함해서)이 반공을 중시한 나머지 미군정이 한국인들에게 강압적인 정책을 사용한 것을 묵인내지 동조한 것에 대해 저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 연구자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인식을 함께 하는 부분이다. 해방 후 선교사들이 해방 후 돌아와 미군과 함께 활동하며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식민지시기 총독부 권력과 미묘한 거리를 두거나 내밀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할 때 묘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pp. 297~301). 특히 북한 기독교인들과 거주자들이 탄압을 받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노동, 농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선교사들도 여기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물론 그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상당 분량 설명을 할애하면서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영향력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남에서 일어난 운동이 북이나 소련의 지시를 충실히 받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pp. 314~316).

6. 몇 가지 문제 제기와 후속 연구에의 함의

1) 저자는 이 책의 표지를 서양 의료선교사가 한국 노인을 치료하고 있는 사진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한국인들을 철저히 대사회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인들의 현신성과 적극성을 부각할 때 한국인들의 입장은 매우 왜소해질 수 있다.

2) 클라크 가족의 경험이 당시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선교사들의 사례들이 더 소개되었다더라면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이야기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다가왔을 것이다.

3) 몇 가지 틀린 정보들이 있다. 예를 들면 ‘테라우치 암살미수사건’에서 윤치호가 석방된 해를 1913년(p. 203의 8째 줄)이라고 하는데 그는 1915년 천황의 특사(特使)로 풀려났다. 한국학자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경우(p. 316의 서장석(Sö Changsók)이 아니라 서중석)도 있다. 서울에 있었던 미국 영사관 직원들은 총영사(Consul-General), 부영사(Vice-Consul), 영사(Consul)로 직급이 각각 다른데 앤드류 에디슨(Andrew W. Edison)은 총영사(p. 219)라고 했는데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4)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랭던(William R. Langdon)영사는 개인적으로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반대했지만(p. 215) 서울의 총영사 게이로드 마쉬(O. Gaylord Marsh)와 마찬가지로 미일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신사비종교론’을 두둔했다고 한다. 그러나 랭던의 입장을 소개한 국무부 자료(langdon to Neville(Tokyo), 1935년 12월 10일 자 395.1163/21)는 그의 개인적 딜레마를 보여주기보다는 선교사들의 종교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신사참배문제에서 일본대사관(특히 대사인 Joseph C. Grew⁴⁾), 서울 총영사

4) 태평양전쟁 직전 주일 미국대사역임. 전쟁 발발 후 억류되어있다가 1942년 포로 송환시 미국에 돌아와 대일 정책 담당관, 극동국장, 국무차관, 장관 대리 등을

마쉬, 영사들인 랭던과 에드슨등 거의 모든 외교 관리들은 평양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신사종교론’적 입장을 비판했다. 후일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를 대행하기도 한 재일본 거물급 선교사 어거스트 라이샤워(August. K. Reischauer)도 평양지역 선교사들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로 비판했다.⁵⁾ 이 책에서는 마쉬의 입장이 주로 소개되고 있지만(pp. 219~220) 미국의 극동국도 한국의 신사참배 문제를 주도한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5)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1940년 말 급박해지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을 떠났고 한국전쟁기에도 그러했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서구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국인들이 전시체제하에서 자발적·강제적으로 협력을 했고 이것이 해방 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윤치호의 예에서 보듯이 중일전쟁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영미인 들에 대한 오랜 비판의식이 그 기저에 있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사실이다.⁶⁾ 이는 선교사들의 행동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맞물려 있는 것일 수 있다.

6) 이 책이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연구방법상의 시사점은 저자가 식민지 역사와 해방 후의 역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분량 상으로 식민지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부분이다.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던 해방 전과 달리

역임하며 천황제를 살리자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의 일본 사회와 전후 구상에 대한 입장은 그의 *Ten Years in Japan*(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을 참조

5) 서울의 미국영사 에드슨이 일본 동경의 미국 대사 그루에게 보낸 비밀문서, 국무부 문서 1936년 7월 6일(395.1163/38) 자 참조 라이샤워 박사는 후일 미국 하버드대학의 일본학의 대부로 알려진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의 부친이다.
6)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의 1940년 3월 18일(p. 457), 1941년 12월 8일(p. 488), 11일(p. 489), 26일(p. 490) 참조.

해방 후 외교 관료나 군부로 미국인들의 주도적인 활동인사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책은 해방 전과 후의 미국인들의 한국문제 개입이 어떻게 지속되며 변화되는 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는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만 아니라 미군과 외교관, 원조담당 관료들(Economic Cooperation Agency-ECA)로 관심을 넓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군대창설과 한미관계에서의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 Hausman)의 역할에 대한 서술은 이 책이 학계에 기여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30년 이상에 걸친 그의 역할이 상징하듯이 이 시기 미국의 한국문제 개입은 군사적, 경제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7) 식민지 시기 선교사들의 한국과의 만남은 그들의 자녀세대(Korea Kids)들의 의식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책도 해방 이후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나 2세대(p. 295; Bill Kerr와 함께 살았던 Dexter Lutz, Clarence Weems, J. Ernest Fisher, Jim Levie),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선교사 자녀들(p. 376의 Horace G. Underwood, Jim Lampe, William Shaw), 그리고 북한 수복 시 평양에 들어간 하워드 모펫(Howard F. Moffett; Samuel A. Moffett의 아들, p. 385)의 경우를 들고 있다. 이들의 해방 후 미군정과 한국전쟁 전후의 한미관계에서의 역할은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룬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사에서 생소한 영역이다. 어쩌면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도 한국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서양인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간단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국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한국을 통해 변화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책이 다루는 방대한 소재와 문제의식은 이 서평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학계에 이 책이 속히 번역되어 소개되기를 바란다.